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은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

손 영 석

오늘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 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로 제시해주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으로 제시해주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자립경제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자립경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자립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경제이다. 다시말하여 자립경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 자재, 설비와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경제가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로 되자면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필요한 제품의 생산을 국내에서 보장할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인재와 원료, 연료, 설비, 자재를 남에게 의거해서는 경제를 자기 식으로,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은 우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된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에 의거하여 새 재료, 새 에네르

기, 우주기술,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급속한 장성을 이룩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시대적흐름이다. 첨단과학기술의 높이이자 곧 나라의 경제발전수준, 국력평가의 척도라고 할수 있다.

자립경제의 중요한 징표는 자립성과 주체성이며 경제적자립은 기술적자립에 의하여 담보된다. 기술적예속은 경제적예속을 낳는다. 자기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의 자 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구조는 경제부문들사이의 호상관계의 체계 즉 경제를 이루고있는 내부부문들의 구성과 그것들사이의 생산적련계, 균형관계를 통털어 표현하는 개념이다. 공업을 비롯한 경제구성부문들과 그것들사이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는 경제구조는 경제의 자립성정도와 국가경제력상태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구조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간다. 사회경제제도와 과학기술의 발전, 자연부원의 상태, 대외경제적환경, 정치군사정세, 경제전략 등에 의하여 경제구조는 변화 된다.

경제가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해나가자면 구조적측면에서 다면성과 종합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것은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는 나라와 인민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부문들이 갖추어지고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가 공에 이르는 생산순환이 자기 나라의 범위에서 완결되게 하는 경제구조이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은 나라와 인민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인민경제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의 확립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부문구조가 규정되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할수록 새로운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지게 되며 경제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률이 낮아지게 된다. 첨단과학기술에 의하여 선진적인 생산공정들이 보충되고 새로운 경제부문들이 출현하여 경제부문구조가 보다 갱신되고 완비되여나가는것이 오늘의 경제발전추세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 조확립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은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설비들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해주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담보로 된다.

경제의 자립성은 중요하게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자원에 의거하는데서 표현된다.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원료, 연료, 동력자원의 감소는 주체적인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꾸릴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는 우리들로 하여금 원료와 연료, 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원료와 연료, 자재와 설비의 주체화를 담보한다. 평양곡산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본보기, 전형단위들의 원료, 자재와 설비의 주체화도,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5t급화물자동차의 주체화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들이다.

오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의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 수산자원과 동력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현실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여야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보다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새재료, 새 에네르기를 얻어낼수 있으며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이것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이 자립경제건설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요인들에는 계획경제의 우월성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인민대중의 정신력 등이 작용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자립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자립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생산력이 발전하여야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생산력은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의 창조적능력과 로동도구로 이루어 진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로동도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곧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이라고 할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은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숙련에 의해서도 높아질수 있지만 기본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높아지게 된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의 가장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자연법칙과 자연을 개조변혁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응용하기 위한 지식의체계인것과 관련된다. 생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있다.

생산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로동도구의 발전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기대할수 없다. 기술은 과학을 실천에 응용하기 위한 수법과 함께 그것이 체현되여있는 물질적수단들도 자기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도구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 시기 석기시대가 수백만년의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도 과학기술이 뒤떨어져있은것과 관련되여있으며 오늘 콤퓨터와 같은 정보설비가 출현하여 지식경제시대가 펼쳐진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의결과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로동도구를 개선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 자립경제건설을 빠른속도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효과적리용에 의하여 보장된다. 생산장성의 기본방법은 집약적방법이며 그것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한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을 전제로 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전반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이 높아지고 공장, 기업소들의 무인화가 실현되면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과학기술이 생산발전에 미치는 작용의 정도는 첨단기술이 얼마나 빨리 개발되며 그 것이 전반적경제부문에 어떻게 도입되는가 하는데 많이 의존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도입하는데서 자본주의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과학기술발 전계획에 따라 첨단기술과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이 계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발전하며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발전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대중적인 기술 혁신운동을 벌리고있다. 특히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력량이 비상히 확대강화되여 지식자원의 대대적인 축적과 적극적인 활용이 튼튼히 담보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도입의 한계와 같은 제한이 없으며 개발된 과학기술적성과 들이 제때에 모든 부문에 도입일반화된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 전면적인 도입으로 사회적생산은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적들의 초강도제재속에서도 평양가방공장을 건설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갖가지 질좋은 가방들을 생산하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이불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류원신발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과 화장품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개건하였으며 과학농사, 과학수산, 과학과수로 알곡생산을 늘이고 바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렸으며 특히 과일군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정보당 과일생산은 2.5배, 사과생산은 5.8배로 늘이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자립경제건설을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지름길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주체화하며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우리 식의 자립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과학기술, 자립경제발전, 지름길